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including '성공 인생 후반전', '08:50 모야모야', '09:05 코코콜라',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00:00 고교특강 올림#포스', '01:40 수능 길잡이',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07:00 상상과 창조의 인문학 이야기', '07:50 수학의 원리 마태미티카', etc.

TV 하이라이트

로마시대,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

신년특선영화 벤틀러 1~2부(EBS·오후 2시10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26년. 예루살렘에서 제일가는 부호 명문가의 장자 유다 벤틀러(찰턴 헤스턴 분)는 로마의 호민관이 돼 돌아온 옛 친구 메살라(스티븐 보이드 분)와 반갑게 재회한다.

힘든 죽음의 노예선에서 3년 넘게 중노동에 시달리던 벤틀러는 어느 날 마케도니아 함대와 치열한 해전에서 사령관이자 집정관인 퀸투스 아리우스의 목숨을 구해준 인연을 계기로 노예 신분을 벗고 아리우스 집정관의 양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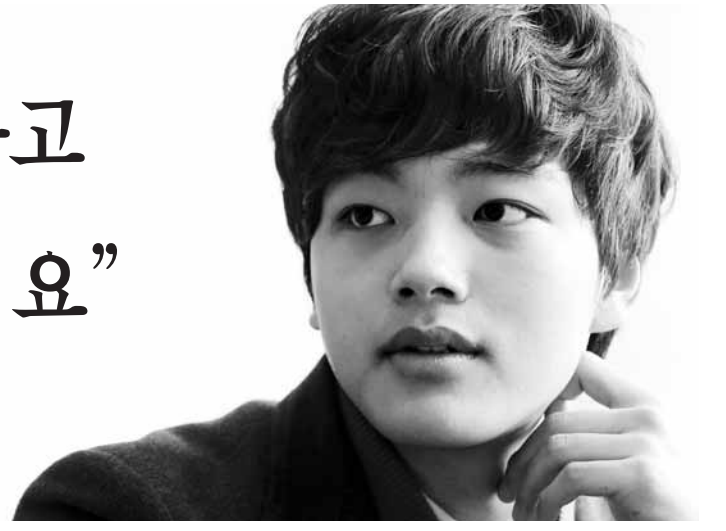
로마에서의 화려한 귀족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벤틀러는 에타가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찾지만 그를 사랑하는 노예 처녀 에스더를 통해 두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된다.

메살라는 벤틀러의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나병에 걸려 나환자들의 골짜기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숨을 거둔다.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벤틀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족과 함께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를 찾아가는다.

벤틀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지켜보며 그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다. 예수가 숨지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온종일 배역 연구하고 몰입하는 배우 될래요”

영화 ‘화이’로 신인상 휩쓴 여진구



도대체 이런 목소리는 어디서 왔을까? 들으면 적 없는 중저음의 탁한 듯 감미로운 목소리. 이런 허용 모순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십 대 소년이다.

연합뉴스 영화담당 기자들이 선정한 내년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스타는 ‘화이 : 괴물을 삼킨 아이’로 올해 영화 신고식을 치른 배우 여진구(16)다. 영화 제목처럼 ‘괴물’ 같은 신인이다. “화이” 덕분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받았죠. 그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두시고 있다는 뜻인데, 무척 감사합니다.

그는 ‘화이’로 올해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독식했다. 제34회 청룡영화상과 제33회 영평상에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제50회 대중상에선 ‘화이’가 출품되지 않아 아쉽게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여진구의 장점은 독특한 목소리와 잘생긴 외모도 있지만 끊임없는 연습과 연기에 대한 열정이다. ‘화이’를 연출한 장준환 감독에 따르면 그는 좀 더 나은 감정을 위해 똑같은 장면을 10여 차례 반복해 찍기도 했다.

“아주 좋았어요. 드라마에선 시간이 부족해 찢쩍거리더라도 테이크를 많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이’에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었어요. 감독님의 요구에 따라 테이크를 많이 갔지만 지친 적은 없었어요. 똑같은 감정을 연기했다면 지칠 텐데, 할 때마다 감독님이 새롭게 주문했어. 감

동님이 세심하게 많은 걸 챙겼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지난해 빅히트한 TV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혜성처럼 등장한 연기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는 8살 때인 지난 2005년 영화 ‘새드 무비’로 데뷔한 아역 출신 연기자다. “어린 시절 TV를 보고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활동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에게 연기자가 되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흘러들지 않으시고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스타덤에 올랐지만, 위기도 있었다. 미성의 소유자였던 그에게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그는 슬럼프에 빠졌다. 중학교 1년 때 찾아온 변성은 종3까지 계속됐다. 까칠까칠하고 거친 목소리는 그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다.

“많이 헤맸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감정전달이 잘 안 됐죠.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다. 그러다가 ‘해를 품은 달’을 연기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쁘기도 했지만 당황했습니다.”

여진구는 드라마와 영화를 거쳐 현재 tvN의 시트콤 ‘감자별2013QR’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트콤 출연은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이다.

“드라마보다도 더 촬영 속도가 빨라요. 템포가 빨라서 조금 힘든 측면도 있지만, 시트콤이라서 그런지 웃을 일이 많아요. 재밌어요.”

방송과 영화를 넘나들며 여러 장르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십 대 소년이다. 아침 일찍 어머니가 깨워도 침대에서 꿈지락거리길 좋아하고 친구들과 농구와 축구를 즐기며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대해 진학도 선택해야 하는 고교생이기도 하다.

“연기도 좋지만, 학생으로서의 학업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전 배우를 할 것기에 때문에 배우로서의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학생으로서의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아요. 2학년 때는 좀 더 학업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간다면 연기보다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여진구는 앞으로 새해에 영화와 드라마에 도전할 예정이다. 시나리오와 각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감자별’의 촬영이 길게는 내년 5월까지 예정돼 있어 그 이후가 될 공간이 크다.

“데뷔한 지 8년 됐지만, 연기에 대해 고민한 건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모든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맡은 역할에 한 없이 빠져드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종일 배역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배우 말이죠. 죽을 때까지 연기하고 싶습니다.”

동방신기 10년 “부른 노래만 1000곡”

오는 6일 정규 7집 ‘텐스’ 발표



“10년간 한국과 일본에서 콘서트 트랙까지 포함해 1000 곡을 불렀더라고요. 우리가 팬들과 공감한 모든 스테이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유노윤호)

“몇 년 전 잠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SM타운 공연 때 와이아이를 타고 분내로 날아오는 연출이 있었는데 돌이 두 손을 꼭 잡고 감명했던 기억이 납니다.”(최강창민)

동방신기(유노윤호, 최강창민)가 데뷔 10주년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들은 SM 음악 페스티벌 ‘SM타운 워크’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단독 공연 ‘타임 슬립’(Time Slip)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났다.

“감회가 새롭다”는 유노윤호는 “10년간 정상의 자라라고 칭해줘 감사하다”며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둔다. 동방신기를 지켜준 건 응원해준 전 세계 팬들과 등 뒤에서 버텨준 스태프 덕”이라고 말했다.

최강창민도 “오늘이 10번째 된 날인데 많은 팬에 둘러싸여 공헌할 수 있다는 게 뜻깊다”고 덧붙혔다.

두 사람은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서로에 대한 고마움도 나타냈다. 유노윤호는 “이래서 뽀빠리”란 걸 느낀다”며 “많은 일을 겪어오면서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신뢰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강창민도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며 “앞으로도 티격태격하겠지만 지경도물 열심히 오래 해박하고 했다”고 웃었다.

이들은 10년에 방점을 찍고 오는 6일 정규 7집 ‘텐스’(TENSE)를 발표한다.

김연아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동계올림픽 특집 ‘마지막 선곡 아디오스 노니노’(MBC·오후 6시20분) = 김연아의 마지막 올림픽 도전을 담은 ‘마지막 선곡, 아디오스 노니노’는 소치올림픽에 도전하는 김연아의 여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어낸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다.

특히 가수 아이유(20·분명 이지은)가 피겨스케이팅 프로그램에 등장해 김연아 선수를 응원한다.

그는 평소 절친한 김연아에게 “(김연아가) 변했다.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를 정도다). (김연아에게) 위풍당당함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털어냈다.

아이유와 김연아는 지난해 1월 함께 부른 ‘얼음꽃’ 음원 수익금(약 1억5000만원)을 필리핀 어린이 돕기 긴급 구호기금으로 내놓는 등 돈독한 우정을 이어왔다.

꽃제비 진혁이를 아십니까



신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신혁이 1~2부’(채널A·밤 9시50분) = 올해 초 방영된 ‘특별취재 탈북’에 나온 꽃제비 진혁이를 기억하십니까. 새빨강색 연 얼굴로 한 겨울 짙은 강을 건너고, 난생 처음 겪는 차림미를 견디며 탈북을 시도했던 진혁이의 진짜 이름은 김신혁이다.

사선을 넘으며 여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지 1년. 신혁이의 키는 20cm 넘게 훌쩍 자랐다. 꽃제비 출신 신혁이는 국경을 넘는 솜박하는 과정으로 감동과 눈물을 안겨주었다. 이번 다큐에서는 신혁이가 한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여는 또래 아이들처럼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과 함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모습도 함께 담았다. 북한 꽃제비였던 7살 진혁이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우주 팽창의 비밀



세상의 모든 다큐 ‘우주의 비밀을 찾아서’(KBS2·2월 0시45분) =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 탄생한 이후로 계속 팽창을 거듭해 왔다. 1988년부터 우주의 갑속 팽창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울 퍼머 교수는 갑속 속도 측정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게 된다. 시험 결과가 갑속 팽창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는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퍼머터는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팽창을 가속시키는 힘은 암흑물질이 가진 중력에 반하는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진 암흑 에너지였다. 우주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에도 존재하지만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큰 힘을 발휘한다.